**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지어 들여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중략)   |  |  |  | | --- | --- | --- | |  |  |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레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 |  |  | | **[A]** | | |  |  | |  |  |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뭇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